

불자들 생명·문화 살리기 ‘한마음’

조계사·수덕사 내포가야산 성역화 및 조계사 방생법회

조계사(주지 토진)와 수덕사(주지 지운)가 공동 주최한 내포가야산 성역화 선포식과 조계사 백중 하안거 방생법회에 참여하기 위한 불자들은 8월 15일 이른 아침부터 서산 보원사지를 찾았다.

보원사지를 향하는 불자들은 한결같이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를 걱정했다. 그러나 아침까지도 조금씩 떨어지던 빗방울은 법회가 시작할 때쯤 그쳤다. 동작구와 서초구에서 출발한 신도들은 방생법회 준비가 아직 한참인 8시에 보원사지에 도착했다. 불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자 법회 준비팀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성역화, 종교문제 아니다”

성역화 선포식과 방생법회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하기 위해 보원사지가 보이는 공터에서 마련됐다. 40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자 넓은 공터에 마련된 야외 법당도 비좁아 보일 정도였다. 미처 법당에 들어오지 못한 신도들은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법회에 함께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의 축원이 시작되자 신도들은 합장을 한 채 마음속으로 저마다의 기도를 올렸다.

토진 스님 축원 후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이 인사말에 나섰다. 지운 스

님은 “모든 불자들의 힘으로 이곳을 우리 시대 불교 성지로 만들자.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종교 영역이 아닌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위한 일이다”고 말했다. 토진 스님도 함께 자리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내포가야산은 백제 시대 교역로로 이용됐고, 불교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조계사는 5월초부터 수덕사와 힘을 모아 내포가야산 성역화 활동에 동참했다. 조계사(주지 토진), 수덕사(주지 지운), 옥천암(주지 정범), 보원사(주지 정준)는 ‘내포가야산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내포가야산 성역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로 서산마애삼존불 전에서 ‘천년의 미소, 천일의 기도’를 주제로 1000일 기도 입제식을 가졌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보원사 출토 불상을 보원사에 모시는 불사도 함께 진행했다.

성역화 선포식 및 방생법회에는 당진군이 지역구인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철환 당진군수, 서용제 서산시 부시장, 최운현 예산군수 등도 참석했다. 내포가야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불교계가 성역화 사업에 나서자 지역 홍보와 문

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성 의원은 “내포가야산은 백제 시대 해상교통 중심지였고, 불교문화의 보고이며 성지이다. 이번 선포식이 백제문화와 불교문화가 빛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사와 수덕사는 도농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산시와 당진군에 불우이웃돕기 쌀을 기증했다. 또한 법회 후 불자들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이들 지역의 신선한 생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문을 설법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성역화 사업이 불교가 아닌 국가 문화 전체를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불교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되살리고 알리는 일이다.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고 말했다.

밀렵된 조류 치료 후 방생

이날 법회에서는 영가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됐다. 제사상에는 술을 따르지 않고 절도 1회씩만 올렸다. 영가의 위패를 모신 반야응선이 소전 될 때는 모든 신도들은 합장한 채 영가의 천도를 기원했다.

신도들은 보원사지를 둘러보며 이번 성역화의 중요성을 가슴에 되새겼다. 토진 스님은 신도들에게 보원사지 주변을 둘러싸게 한 뒤 내포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을 함



불자들이 보원사지에 함께 모여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을 서원했다. [사진=조계사 제공]

게 서원했다. 보원사지를 둘러본 신도들은 ‘백제의 미소’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친견했다.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길은 많은 인원이 교행하기 좁은 산길이다. 그러나 4000여명의 신도들은 작은 사고도 없이 좁은 길을 질서 정연하게 오르내렸다. 아씨의 손을 잡은 엄마들과 지팡이를 짚은 노부부들도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방생법회는 야생조류 30수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생된 조류는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밀렵꾼들로부터 포획해 치료를 마친 새들이었다. 조계

사 주지 토진 스님과 지승동 조계사 신도회 회장, 구자선 조계사 신도회 고문과 평신도들이 함께 방생의식에 참여했다.

토진 스님은 야생조류를 손에 쥐고 입을 맞추며 새들이 포획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잊기를 기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조류를 방생하면서 자신들의 염원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서원했다.

참가자들은 내포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의 의미를 담아 보원사지 방향으로 새들을 날려 보냈다. 자유를 얻은 새들은 보원사지 하늘을 한 바퀴 날아오른 뒤 가야산의 품속으로 사라졌다. 박기범 기자

이나는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큰 스님 비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에릭·이지훈 트위터 발언 두고 시골

에릭의 법정 스님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 연예인 이지훈이 에릭에게 트위터로 통해 비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지훈은 에릭에게 “그냥 논쟁 하지 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네가 욕하고 욕할 때 누가 웃을까?”라며 “글자 하나 하나에 성령의 담대하심이 느껴진다. 그 어떤 것이 옳더라도 이기리라. 욕과 같은 인내와 다니엘과 같은 확신과 담대함과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이 늘 그 안에 거하길 기도하게”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지훈은 지난 6월 막을 내린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상업 뮤지컬 ‘원효’의 주인공 ‘원효’역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번 이지훈의 트위터 발언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씨는 이지훈의 트위터 발언을 캡처해 부루나에 올린 뒤 “이지훈 씨가 과연 원효에 어울릴만한 인물이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불자를 키웠으면 한다”며 불자 연예인 육성을 강조했다. 불자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씨는 “타 종교인들은 철저하지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잘 뭉친다. 그것이 모

두 옳다는 건 아니지만 불자들은 결속력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실천력이 약하다. 불자들이 뭉쳐야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신교인들과 종교적 견해의 논쟁은 시간낭비이므로 그들의 방식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 씨는 “개신교인들은 이미 목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있어서 타종교인과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 해도 소용없다”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차라리 같은 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불교가 우상숭배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물위로 걸었다는 것은 과학이냐?’ 라고 되받아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이어 입적한 큰 스님들을 비방하는 공인들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계종은 수시로 일어나는 공인들이나 영향력있는 목사들의 망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 명목으로 소송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철 스님 오도송관련 유언비어나 에릭 사건과 같은 관행이 줄어들다. 도대체 조계종은 무엇이고 있는 것인지 특하면 사방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나는 기자

“가야산 성역화는 국가문화 발전 위한 것”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법문

이날 법문은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사진)이 설법했다. 스님은 문화의 중요성과 내포가야산 성역화의 참된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은 수 백 개의 사찰과 문화재가 산재한 곳이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완성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신앙과 철학, 신념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문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승자였던 신라의 문화는 잘 보존돼 왔으나 패자인 백제의 문화는 방치됐으며 안타까워했다. 무관심 속에 방치하기에는 백제의 문화가 우수하고 찬

란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우리가 내포가야산 일원을 성역화 하는 것은 불교문화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재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역화를 선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포가야산 성역화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국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다. 내포가야산 일대는 문화적으로 경주 못지않은 곳으로 꼽히며 더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보존돼야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설정 스님은 내포가야산 문화재와 동식물들을 보존해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포가야산은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불자들이 그런 목표를 서원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가야산 성역화는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는 미래도 없다. 문화재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복원하면 국민의 삶이 신장될 것이다. 이 지역을 복원하고 발전시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원과 성역화 선포의 의미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에릭, 법정 스님 비하발언 논란

“법정 스님도 살인했잖나?”

가수 겸 배우 에릭(본명 문정혁)이 법정 스님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에릭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팬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 위묘의 말을 자주 전했다. 이에 한 팔로워는 “믿지 않는다. 법정에 가서 버림받는 그 역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말이 있다”며

법정 스님의 말을 소개했다.

이에 에릭은 8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음은 얼마나 송고합니까 마는 법정 스님도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을 하셨잖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남겨 논란을 야기했다.

에릭의 이 같은 발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에릭은 8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에릭은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총정대행 : 목탁 해은 부원장 : 금당 범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